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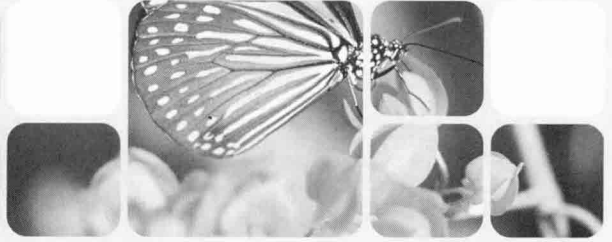


소

식

경

계



환경관리공단,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간 파격 단축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환경측정기기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남부검사소를 준공하여 지난 3월부터 업무를 본격 수행했다.

이 검사소가 준공됨에 따라 영·호남 지역 200여개 사업장의 500여대 굴뚝배출가스측정기 검사는 종전 3일 걸리던 것을 당일처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영·호남지역 사업장들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굴뚝배출가스측정기 등의 정확도검사를 위하여 매년 환경관리공단이 소재한 인천광역시까지 장비를 트럭에 싣고 운반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남부검사소 설치로 공단은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사업장의 불편을 줄여주고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번 남부검사소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된 영·호남지역 사업장을 위해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여천 등 호남지역 업체들은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상의 서울산 IC를 이용 시 약 3시간 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남부검사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굴뚝

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의 정확도검사 외에 앞으로 정수장의 수질측정기 정확도검사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농촌 오염시키는 농약봉지 수거사업 본격 착수

주로 은박류와 종이로 이루어진 농약봉지의 사용량이 최근 증가하면서 다 쓴 농약봉지가 농가에서 불법소각 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되는 등 사후처리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던 폐농약봉지의 수거·처리 사업을 2008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약봉지 수거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농약 생산자에게 수거 안내문을 표기토록 하고 농약판매상, 농협 등의 유통경로와 최종사용자인 농민에 대해서는 배출요령 안내 등의 입체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폐농약봉지 1장에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이 다 쓴 농약봉지를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고 수거해 간다.



국토해양부, 시화호 남측간석지 친환경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승인



시화 남측간석지에 수도권을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레저도시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측간석지 54.69km² (1,654만평)에 관광·레저와 주거,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했다.(송산그린시티는 시화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시행)

송산그린시티는 1998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된 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로 장기간 정체되었던 사업으로서, 2004.1월 정부, 시민환경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4년동안 약 160여 회 이상 논의한 끝에, 송산그린시티의 친환경적 개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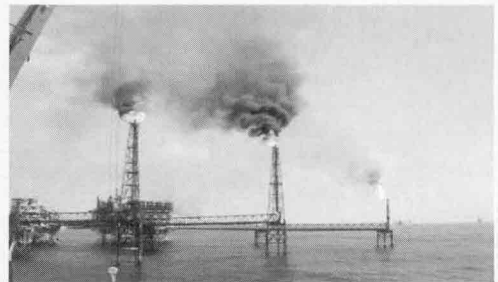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송산그린시티 개발은 민관이 장기간 협력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민관협의체에서 개발계획은 물론, 시화지역의 환경개선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중인 시화지속협의회를 3~4월경 공식적인 갈등관리기구로 새롭게 제도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새로 구성될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올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9년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주택분양은 2010년부터, 테마파크·마린리조트 등 시설물의 입지와 주민 입주는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시화호 수질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단, 오염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화지역이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레저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며, 송산그린시티 개발은 인근에서 진행중인 송도국제도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북측간석지) 개발 등과 연계하여 경기 서해안권을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비즈니스 및 관광레저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12년까지 18%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석



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5.7%, 그리고 2012년에는 18.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4대 지역을 중점 진출 전략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통령,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하는 정상급 자원의외교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이윤호 장관 주재 하에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SK에너지 등 자원개발 관련 40여개 공기업과 민간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루 4만6,000배럴의 추가 자주개발물량을 확보해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을 5.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생산유전 인수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존 광구의 생산량도 늘릴 방침이다. 또 개발광구를 생산광구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 45만 배럴의 추가 자주개발물량을 확보, 오는 2012년까지 자주개발률을 18.1%까지 높여간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23개 해외유전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이지리아 심해 해상광구, 우즈베크 아랄광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내에 생산광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사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계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40%가 매장돼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대상으로 대통령, 총리 등의 정상급 자원의외교를 전개해 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올

해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칠레 등 22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건립 공사 착공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지난 12일에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환경시료은행(Environmental Specimen Bank)은 환경분야의 타입캡슐로서 시대별로 소나무 가지, 패류, 비둘기알 등의 환경시료를 채취·초저온 냉동하여 사후에 환경문제 발생시 비축시료를 꺼내어 시계열로 분석·조사, 환경질의 변화와 생태계의 반응간 함수관계를 도출함으로써, 과거형 환경문제의 역추적 진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 환경문제를 정확히 진단·예측할 수 있게 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기반 시설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9년부터 환경시료은행을 건립·운영하면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오염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시대별로 역추적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환경보전에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 있으며, 과학원은 선진국의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환경시료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최첨단 시설로 환경시료은행을 설계하였다.

금번에 건립되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2,340㎡)로 액체질소가스를 이용하여 -150℃ 초저온 냉동에서 100~150년 동안 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보관탱크 74기가 설치된다.



이는 2030년까지 생태계를 대표하는 14종, 40만점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며, 은행에는 고효율 공기청정기능이 수반되는 동결분쇄실, 시료제조실, 정밀분석실 등이 만들어지며, 보관되는 시료는 바코드로 DB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입·출입을 기록하는 등 최첨단시설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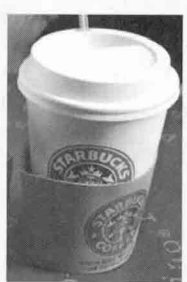
시료의 채취는 육상, 하천, 해양생태계에서 대체로 1년 주기로 채취되며, 소나무 가지, 패류 등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육상생태계 :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 신갈나무와 느티나무 잎, 토양, 지렁이, 집비둘기 알 등 7종
- ▶하천생태계 : 민물조개, 잉어, 저질 등 3종
- ▶해양생태계 : 해초, 바다조개, 해양 어류, 갈매기알 등 4종

앞으로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초로 오염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므로써 오염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환경정책 수립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였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지난 20일 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

겨 오는 경우에는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 운동도 전개토록 하여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횃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판단되어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중에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㉔)